스마트폰 출고가 내리고 지원금 대폭 늘렸다

■ 이통3사, 단통법 시행후 가입자 급감에 고육지책

KT, 갤럭시S5 지원금 27만2000원으로 상향
SK텔레콤, G3비트 출고가 지난달 이어 또 인하
LG유플러스, G2 지원금 50만원으로 업계 최대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후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자, 이통사들이 잇따라 단말기의 출고가격을 내리고 지원금을 추가하고 있다. 시장을 감안,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갤럭시S5와 G3 등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출시한 5종의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했다. 완전무한87 요금제 기준, 갤럭시S5의 지원금은 20만3000원에서 27만2000원으로, G3는 20만3000원에서 29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또 갤럭시 노트3과 갤럭시노트4의 지원금도 각각 18만원, 20만3000원에서 22만5000원으로 인상됐다. 이밖에 갤럭시 그랜드2의 지원금은 27만2000원에서 29만원으로 늘었다. 앞서 KT는 지난 12일 갤럭시 그랜드2(인하금액 5만5000원)와 갤럭시코어(5만600원)의 출고가를 내린 바 있다.

SK텔레콤은 2G와 3G 피처폰 8개 기종에 대해 요금제에 관계없이 최소 8만원(표준요금제 기준·부가세 별도)의 단말 지원금을 보장하기로 했다. 해당 기종은 삼성전자의 미니멀 폴더, 와이즈 2(2G·3G), 마스터 3G, 마스터 듀얼(2G)과 LG전자의 와인 샤베트, 와인폰4 등 총 8종이다. 그동안 이들 기종에 대한 지원금은 최대 2만4000원 수준이었으나 지원금을 최대 8만원까지 늘린 것이다. 피처폰 이용자 대다수가 중저가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어 지원금 혜택이 크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 선보인 제도로, 피처폰 이용 고객들의 가계 통신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SK텔레콤은 내다봤다.

SK텔레콤은 또 제조사와 협의를 거쳐 LG전자의 옵티머스 G프로와 G3 비트 등 2개 기종의 출고가를 각각 7만7000원과 2만7700원 인하해 39만9300원으로 통일했다.

옵티머스 G프로는 단통법 시행 이후 첫 출고가 인하이며 G3비트는 지난달 23일에 이어 또다시 가격을 인하한 것이다. 아이폰6(16G)와 아이폰6플러스(16G)의 최초 지원금은 17만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22만원으로 5만원 인상됐다. 갤럭시노트4도 11만1000원에서 22만원으로 10만9000원이 늘어났으며 갤럭시S5와 G3 Cat 6도 13만3000원에서 25만원으로 11만7000원 인상됐다.

LG유플러스는 일부 일반폰 기종에 대해 경쟁사보다 많은 최대 13만원의 최저지원금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LG 와인4, 삼성 마스터 등 2G폰 2종에 대해 요금제와 관계없이 최저 지원금으로 12만9600원(표준요금제 기준)을 제공한다. 두 기종의 기존 최저 지원금은 2만4000원으로, 지원금액을 한번에 10만5600원 인상한 것이다.

또 LG G2와 와인스마트 등 스마트폰 2종의 지원금도 각각 50만원과 25만원(LTE8 무한대 89.9 기준)으로 인상했다. 특히 G2는 종전보다 30만원을 인상해 업계 최대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이동통신 가입자 증가폭 3분의 1로 '뚝'

10월 한달 6만5534명 증가 그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증가세가 법 시행 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10월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5681만310명으로 전월 말 대비 6만5534명 늘어났다.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이후 월평균 19만명씩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단통법이 시행된 10월 한 달간은 가입자 증가폭이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업체별로 가입자 수를 보면 SK텔레콤은 2841만1664명, KT는 1723만8057명, LG유플러스 1160만8666명으로 전월 대비 각각 8657명, 5만4044명, 1923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도 SK텔레콤 50.01%, KT 30.34%, LG유플러스 19.64%로 전달(SKT 50.05%, KT 30.28%, LGU+ 19.66%)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10월 가입자 수가 급감한 것은 시행 초기 이통사가 내놓은 보조금이 소비자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알뜰폰에 관심을 나타내며 알뜰폰 가입자는 17만7000명 늘어난 431만5274명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유엔ITU 발표 정보통신기술 발전지수 한국 2위

덴마크 1위…일본 11위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24일(현지시각) 발표한 정보통신기술 발전지수(IDI·ICT Development Index)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전체 조사대상 166개국 중 덴마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ITU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 IDI가 8.85로 덴마크보다 0.01이 뒤졌다. 전년도에는 한국이 8.81로 1위였고 덴마크가 8.78로 2위였다.

이번 순위에서 스웨덴이 3위, 아이슬란드가 4위, 영국이 5위를 차지하며 유럽 국가들이 우위를 점했다. 아시아에서는 홍콩이 9위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가장 높았으며 일본은 11위, 중국은 86위였다. 미국은 14위를 차지했고 꼴찌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었다. 북한도 ITU 회원국이나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구글 플레이 기프트 카드 서울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모델들이 '구글플레이 기프트 카드'를 선보이고 있다. 이 카드는 구글의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인 구글플레이의 결제 수단 중 하나다. 종류는 1만5000원, 3만원, 5만원, 10만원, 15만원 등 5가지다. 홈플러스 계산대에서 결제 시 해당 금액만큼 충전돼 PC·스마트폰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이나 게임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스마트폰 기자재 구매대행업체 '전파인증' 의무화 사실상 폐기

미인증업체 금지 조항 '단통법'에 막혀

스마트폰을 포함한 방송통신기자재 구매대행업체에 전자파 적합성 평가(전파인증) 의무를 부과하려던 정부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최근 정치권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의 구매대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한 전파법 재개정안이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다. 이 법안은 장병완 의원을 필두로 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0명이 발의한 것이지만 여당 내에서도 이렇다 할 반대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27일 미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애초 미래부는 2012년 10월 전자파 미인증 방송통신기자재를 구매 또는 수입대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 법안은 올해 5~6월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4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현행법상 전파를 이용하는 기기는 전파 간섭에 의해 주변기기에 장애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작동·성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파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전파인증 의무 부과 대상을 기존의 정식 수입업체에서 구매·수입대행업체로 확대한 게 미래부 법안의 핵심이다.

이 법안은 그러나 지난달 1일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 흔들리기 시작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축소로 단말기 가격이 비싸짐에 따라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통한 합리적 가격의 외국산 단말기 구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당 법안이 이런 움직임을 막는다는 것이다.

업체가 보급형 스마트폰 전파인증을 받으려면 시험비용 및 수수료로 약 3300만원을 지불해야 해 직구의 효용이 사라진다는 논리다.

미래부도 거센 단통법 비판 여론에 밀려 일단 전파법 재개정에 동의한 상태다. 다만 미인증 방송통신기기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으려면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는 관세청의 수입 통관 단계에서 제품을 회수하거나 폐기 처분하는 등의 방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금주의 추천앱

오디션 프로그램이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다. 슈퍼스타K 시즌6이 인기리에 종영되고 연이어 K팝스타가 방송이 되면서 오디션 관련 상품들도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된 앱들을 소개한다.

히든싱어 Karuso 카루소 /제작:MTCom /안드로이드, 아이폰
가수와 모창자가 블라인드 뒤에서 한 소절씩 노래를 부르고 청중단이 진짜 가수를 찾는 '히든싱어'의 1차 오디션 앱이다. 라임, 음색, 음세기 등을 원곡과 비교하여 모창을 얼마나 잘하는지 평가해준다.

AutoRap (오토랩) /제작:Smule, Inc /안드로이드, 아이폰
평범한 문장을 원하는 비트에 맞추어 랩으로 변환해주는 앱이다. 100곡 이상의 비트에 말하듯 간단한 목소리만 남겨도 독특한 랩이 탄생한다.

드림싱어 (질러쏭) /제작:TJ 커뮤니케이션(주) /안드로이드, 아이폰
노래방 기기회사로 유명한 TJ 미디어에서 제작한 앱으로 사용자가 부르는 노래를 정밀 조사하는 시스템에 주목할만하다. 매주 최신곡이 업데이트되어 손안의 노래방을 구현할 수 있다.

DESIGN ZOOS 제공:디자인주스 (대표 정우주 tiger@designzoos.com)